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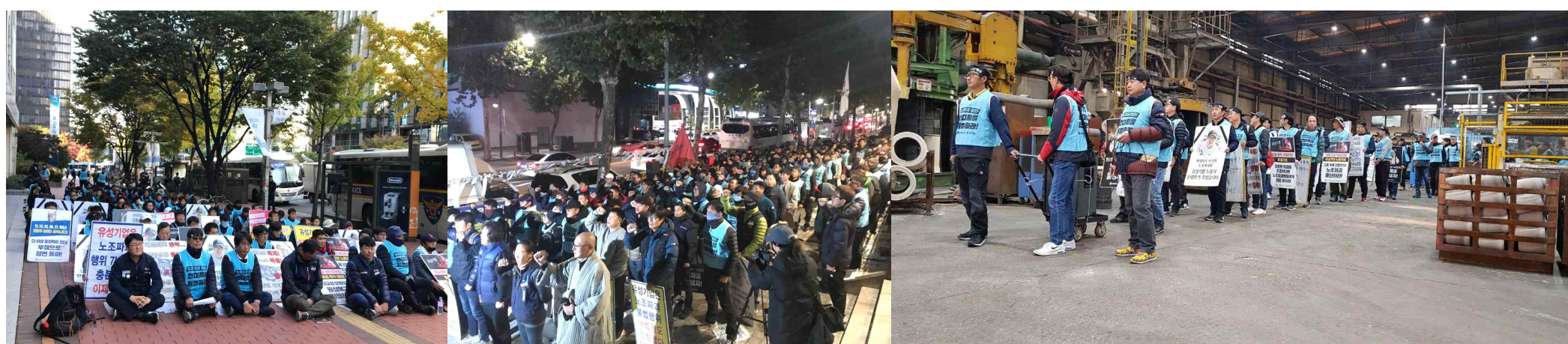
31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8년 11월 5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꼼수는 용서없다! 전면파업으로 끝장낸다!



11월 9일(금) 10시, 유성 2차 교섭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드디어 끝날 수 있을지 판가름낼 교섭이 10월 29일 시작됐다. 첫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임금, 단체협약, 책임자 처벌, 어용노조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공감했다. 사측은 차기교섭에서 제시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차기 교섭은 11월 9일 서울에서 진행된다.

첫 교섭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실질적인 경영권 승계자인 유현석 사장(유시영 회장의 아들)이 교섭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회는 절대 마음을 놓지 않고 정말 노조파괴를 끝장내는 순간까지 강고한 투쟁대오를 유지하기로 했다.

11월 9일까지 전면파업!

지회 조합원들은 공장별로 총회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토론했다. 조합원들은 다음 교섭이 열리는 11월 9일까지 전면파업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11월 9일이면 전면파업 26일차가 된다. 한달 전면파업으로 월급 한 푼 못받더라도 반드시 끝장낸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다 내놓고 모든 걸 걸고 투쟁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오히려 지도부에게 투쟁수위 고민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지회는 11월 1일 유시영 회장을 배임, 횡령죄로 고소했

다. 노조파괴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 조합원들에 대한 개인적 고소 사건의 변호사 비용, 공장장과 유시영 회장의 형사사건에도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여기에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 유시영 회장의 죄가 하나 더 늘어났다. 이제 유시영 회장이 법의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다.

지부의 투쟁은 계속된다!

지부는 10월 29일 임시대대를 통해 유성지회 투쟁 지원을 위한 특별 투쟁기금(조합원 1인당 1만원)을 결의했다. 그리고 매주 (수), (금) 18시 유성기업 서울본사 앞 촛불문화제에 함께 하고, 유성기업이 허튼 꼼수를 부리면 지부 총파업까지 집행할 것을 결정했다. 오늘로 전면파업 22일째를 맞고 있는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길어지는 전면파업으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지부 전체 조합원들의 마음이 전달된다면 유성지회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지부는 유성지회의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끝낼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노조파괴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조법 전면 개정 투쟁까지 이어갈 것이다. 유성투쟁과 하반기 총파업을 통해 반드시 노조파괴 뿌리를 뽑을 것이다.